

지 상 범 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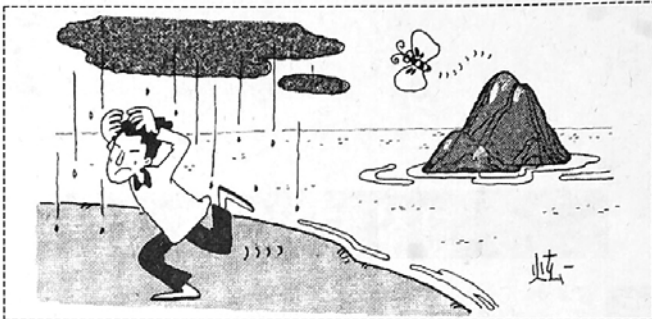
함께사는 세상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하는 것은 보답이나 이름 알려지기 바라지 않고 타인을 위한 자비행입니다”

했다든 사실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즉 계층간의 극단적인 분열, 노(勞)와 사(使)간의 폭력적 대립, 좁힐 수 없는 빈부의 격차, 부녀자와 연소자에 대한 저임금과 가혹한 노동, 취미의 통속화와 실직의 증대, 정신질환과 범죄증가, 노년기의 불안정, 산업재해, 주택 및 교통문제 등이 루 헤어할 수 없는, 산업발전의 대가로서는 너무 값비싼 것들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서구의 사회복지 개념이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때문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락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며, 모든 번뇌를 끊기 위함이며 열반에 들어 유무(有無)를 단절하고자 함이다'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무엇보다 상(相)을 내지 않는 '무주상(無主相)보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또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함에 보답을 바라고 하지 않으며, 사후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선명(善名)을 베풀기 위함도 아니며... 오로지 타인으로 하여금 인락하게 하고 싶기 때문이며 자기의 연민심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시란 대가를 바라지도 상을

음도 나눠 주던 위로 방문 행렬도 어젯일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당시 소적새 마을의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자 여러분께 한가지 심각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소적새 마을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시설에 여러분들이 내는 후원금이 과연 자신의 진정한 자비심에서 비롯된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그저 주변에서 관해서, 그냥 불쌍해 보여서, 스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혹은 마음속에 담고 있는 점을 그들에게 베풀음으로 해서 위안을 얻었다는 마음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보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래 불자들의 보시행이 너무 재물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워버릴



언젠가 한 종교인이 불교의 윤회설과 연기설에 의문을 품고 "모든 것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지만 달 위에 돌맹이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말 씀입니까?"라며 "왜지와 사람이 같다는 뜻입니까?"하고 질문을 던진적이 있다. 지진이 크게 나서 수십만이 죽어도 지진의 영향을 받는 곳만 받을 뿐인데, 달에 돌맹이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지구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는가? 분명히 왜지와 사람은 다른 것인데 어떻게 다른 것끼리 서로 바뀔 수 있겠는가? 따라서 윤회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연기설은 적당히 가감해서 해석할 것이지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서로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은 이 질문은 담고 있다. 상식적으로 옳은 말이다. 그런데 한라산에 사는 나비 한마리의 날개짓이 몇개일 후 서울에 폭우를 몰고

내버렸을 것이다. 유일신 알라의 계시를 받고 신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성자 마호메트가 세상에 내려 왔을 때 아랍인들은 마호메트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단순 명쾌한 증거를 요구하였다. "네가 진정한 신의 사도라면 저 달을 뜰로 쪼개어 보라. 전지전능한 창조주가 너를 위해 저 달을 쪼개면 네 말을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너는 거짓말쟁이니가 이 칼로 네 목을 치겠다" 이에 절망한 마호메트가 두 손을 높이 쳐들고 "신이여 어찌 하리이까"하고 괴로움을 호소했을 때 마호메트의 손을 따라 밤하늘을 쳐다 보면 사람들은 달이 뜰로 갈라진 것을 보았다고 한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마호메트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면 그렇지. 종교에 불과도 종교와 같은 깨달음의 종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같은 믿음의 종교가 있듯이 사물을 보고 진리를 찾는 방법에도 두가지가 있다. 깨달

불교 깨달음통해 진리 꿰뚫는 종교 관찰보다 직관중시 초과학적 세계

을 수도 있다.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자(電子)라는 소립자(素粒子)와 생명활동과는 관계도 없고 태양과 지구사이를 남으로 북으로 돌아다니는 중성미자(中性微子, neutrino)라는 소립자를 한가지 소립자의 서로 다른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면 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종교는 성자의 깨달음으로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데 종교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유익한 내용을 찾아 읽으려 해도 쉽게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이 일반인에게는 모순되는 경우에 더욱 그렇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내용을 핵심만 골라 압축하여 놓은 <반야심경>은 온통 일반인에게는 난해하고 모순되는 말로 가득차 있다. 반야심경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도 성자의 가르침을 진심이라 믿고 받아들이려는 불교도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초과학적 현상이다. 현상마저도 물질적인 것이라면 정확한 물리학의 법칙을 따르고 있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

필자소개
- 1968년 서울대 물리학과 출, 73년 서울대 대학원 물리학과 석사.
- 75~79년 와싱턴대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 과정이수(소)
- 79년 충남대학교 교수
- 87~88년 독일 쾰른대 교환교수
- 94~95년 미국 비라군대 교환교수

이웃은 법계 영겁인연...더불어살면 절로 행복
富와 지식 사회 회향하지 않는다면 가난한 삶

사회가 받는 사회변동의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의 산업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나 결함의 보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란 항상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을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서구의 사회복지의 가진 사람 또는 국가의 자선사업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볼 점은 자신 사업가들의 헌신적인 태도나 물질적 원조만으로는 산업화 과정이 결함과 파생되는 문제들을 보다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70~8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절대적 빈곤으로부터는 해방될 수 있었고 국민생활의 기본적인 의식유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음은 다행한 일이지만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볼 때 성장에 기여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한 배분을 이루지 못하고 국민의 위화감을 조장케한 일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라 함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서 타인에게 나누어 주는 보(布)와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삶에게 베푸는 시(施)를 말합니다. 특히 보시는 육바라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삼는 보살행으로서, '지혜로운 사람이 보시를 행함은 이웃의

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안타까운 현상중의 하나는 이 숭고한 보시마저 자신의 것들만을 위한 '복전(福田)'으로 삼거나 자신이 일상에서 저지른 업보에 대한 면죄부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난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적새 마을 사건을 지켜보면 서 나는 커다란 충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나를 슬프게 했던 것은 사건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의 불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안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당장 가장 큰 고통을 겪어야 했던 것은 장애인 원생들이었습니다. 비리를 제보하고 폭로한 언론사의 입장이야 당연히 일력의 비행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음으로써 원생들이 보다 나은 대우를 받게 하자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결과는 그들을 더욱 허무한 구석으로 몰아 넣고야 만 것입니다. 당장 매달 들어오던 후원금이 폭 끊어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관청에서는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잠잠했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다시 고개를 드는가 하면 원생들의 손발이 되어 주던 자원봉사자들의 발걸음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에서 찾아와 딱도 주고 웃

수 없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후원금은 들어와도 실제 장애인들의 수발을 들어주고 그들의 진정한 눈과 귀가 되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구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이 없는 일꾼까지 보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보시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결에 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참된 불자로 나아가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사(眼色)'인데 눈을 자비롭게 뜨고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둘째는 '희안열색사(和顏悅色)'로서 얼굴을 평화롭게 하고 기쁨을 머금고 기색을 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찡그리는 얼굴을 지으면 그 자체만으로 남에게 해를 주는 것이고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지으면 남들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인사(言辭)'인데 말로 남들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둡고 근심스

“집착·탐욕 악순환에 갇혀 보살행 등한시하면 일만석 공양·일만번 절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거처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부(富)를 세상을 향해 회향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없이 가난한 사람일 뿐입니다. 나고 죽음이 있는 한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관계, 재물과 사랑은 끝이 없는 집착과 탐욕의 악순환을 불로케 되고 그것에서 파급되어나오는 진정한 보시행의 보살도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일만석의 공양비와 일만번의 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우리에게 또한 나누어 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주법계의 영겁인연 속에서 더불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2천만에 깨달음을
나를 바로 보고, 세계를 바로 보고, 참수행으로 이끄는 신행의 길잡이!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안내
본사: 대표 02-737-8881, 팩스 02-737-0697, 광고국 02-737-0692, 전화신청 02-737-0693
부산지사: 전화 051-634-5114, 팩스 051-634-5188
경주지사: 전화 062-375-9986, 팩스 062-371-7544
대구지사: 전화 053-427-8008, 팩스 053-425-8356
제주지사: 전화 064-55-9800
특보보급소: 전화 0631-281-2534
경주보급소: 전화 0416-55-0020

불교인들의 반향,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세요! 현대불교신문을 구독하시는 불자들에게 그동안 이 자임 결혼 연구원을 뜨겁게 성원해 주신 사랑에 보답드리기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96년 4월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기본회비 20만원의 등록회비를 무료로 실시하고 사무실 전화요금과 상담비 명목으로 적은 비용으로 불자님 가정에도 다소 도움을 드리고자 좋은 만남 될때까지 책임감있게 성심성의를 다하여 성혼을 이룰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추진하여 계속 추진해 드립니다.
구비서류:
- 초혼남녀: 주민등록 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부)
- 재혼남녀: 효력등본, 주민등록등본, 졸업증명서, 사진 (각 1부)
- 학력: (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 연령: 남녀 (23세 ~ 70세 까지)
- 초재혼: 여(국졸,중졸만 - 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특수한문: 정신장애, 유산장애를 갖고 어렵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남: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특별상담)
여: 학력 제한 없음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법명: 無生心)
농협은리인구좌: 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02) 634-4910 ~ 2

부처님오신날 설법자료, 홍보책자 보급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인등의 유래와 공덕,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 하였으므로 초파일 범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도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을 할 수 있으며, 초파일 전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연등공양 이야기
수록 내용:
제부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1. 부처님 오신날 봉축 발원문
2.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범회 식순
제부 부처님 탄생
1. 전생이야기
2. 탄생이야기
3.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제부 등을 밝히며
1. 등을 밝히는 뜻
2 등을 밝히게 된 유래
3 등의 종류
4 등을 밝히는 정사들
제4부 관불의식
1.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제5부 등불공양의 공덕
1. 등을 공양하는 공덕
2. 등을 공양에 얽힌 이야기들
3. 순가사의 등불공양
부처님의 생애
* "연등공양 이야기" 책자를 법보시 한 사찰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생애"를 법보시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한일은행 170-105243-12-003
조흥은행 322-04-190572
예금주 선문빈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 로타리)
☎(02)723-4306~7 FAX: 738-8682